

독서인구도 길러낼 수 있다

주명철

한국교원대 교수·역사교육학

오늘날 글을 쓰고 읽는 방식은 변해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출판인 가운데 종이에 인쇄한 책이 아니라 화면에 떠올려 읽는 책을 출판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먼 뒷날, 오늘 우리가 들고 다니며 읽는 것과 같은 형태의 책이 더이상 출판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은 아니라고 믿는다. 각 시대마다 발전시키고 쌓은 기술의 정도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를 겪어 오늘에 이르렀듯이, 그것은 오늘에 비해 실로 혁명이라 할 만한 변화다. 그런데 우리는 '트랜지스터 혁명'을 잊었듯이, 책 자체가 겪은 '혁명'도 잊고 있는 것 같다.

인류의 역사에서 기록이 생겨난 뒤에도 오랫동안 직접 머리 속에 집어넣는 기억술에 의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점점 기억술에 기댈 수 없을만큼 삶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 기록이야말로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을 보존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도 종이의 대량생산이 있기 전에 중대한 변화를 겪어, 금속활자에 의한 활판인쇄술의 보급과 함께 있을 정보의 혁명을 예고하였다. 오늘날 그 자체로서 또한 훌륭한 기록이며 혁명이라 할 '카세트 테이프' 과, 또다시 혁명이라 할 '컴팩트 디스크'를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기술이 쌓이고 응용되는 속도는 시간이 흐를 수록 빨라지기 때문에 책은 이러한 변화를 조금도 겪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벌써 오래전 마찬가지로 변화를 겪었다. 점토판, 나무, 대나무, 파피루스 같은 것을 빼고 간단히 말해서, 책은 처음에는 카세트 테이프 같이 두루마리(volumen) 모양이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카세트 테이프를 이리저리 되감듯, 두루마리를 감았다 폼다 해야 했는데, 같은 내용을 적은 두루마리도 글씨 크기에 따라 길이가 달라질 수 있었다.

다음 단계가 두루마리를 펴서 일정한 간격으로 접어나간 모양이다. 그러나 이것도 오늘날의 책 모양(codex)에 비해 얼마나 불편한가. 오늘날의 책에는 쪽수에 찾아보기까지 있어서, 두루마리가 줄 수 없는 편리함을 준다. 이것은 카세트에서 컴팩트 디스크로 넘어간 것과 같은 효과에 비할 수 있다. 책의 모양이 변하면서—여기서는 인쇄술까지 포함한다—독서법도 달라졌다. 소리 내어 읽는 방식이 묵독법으로 바뀌고, 독자는 그 덕택에 읽는 내용에 줄을 치거나 표시를 하면서 쉽게 내면화할 수 있게 되었다.

큰 책방에 가면, 서서 책을 읽는 사람을 많이 본다. 그중에는 연필을 들고 필요한 부분을 베껴가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책과 친한 정도에 따라 배울 수 있는 묵독법의 승리라 하겠다. 옛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책을 소리내어 읽으시던 모습, 코흘리는 꼬마가 책을 소리내어 읽는 모습은 때론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묵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은 제 나름대로 인쇄물, 책과 친하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전반적으로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걱정 of 소리가 늘 나오고, 특히 책의 해를 맞아 더욱 그같은 걱정을 하는 소리를 듣는다. 인구는 느는데 비해, 독서인구는 늘지 않거나, 심지어 줄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가? 독서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 있나? '독자'의 부모만 피임을 하는가? 실소를 자아내는 이 어리석은 물음은 나의 절망을 나타낸다. 아마 독자가 줄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똑같은 절망감을 갖지 않았을까? 쉬운 책만 고르지 않고, 어렵지만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을 정성껏 읽는 건전한 독서인구를 길러내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절망감, 교육제도와 함께 교육기관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전반의 부조리와 부정에 대한 절망감.

사실 책의 형태가 변하고, 읽는 방식이 변했다 해도, 일정한 독자층만큼은 삶의 양식이 되는 책을 어렵더라도 읽어야 한다. 이 건전한 독자들이 우리의 집단 기억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문화창달에 기여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뜻에서 독자가 줄었거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합리적 설명보다 불가사의한 억지설명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 훌륭한 지성이 낳은 책이 제대로, 많이 읽힐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부모여 건전한 독자를 낳자!

뉴스 2	독서진흥법 제정 관련단체간 이견
연중기획 4	농민운동의 이념적 분파 소설로 종합 — 임현영 한국근대사와 책의 사회사 ⑨ 심훈의 「상록수」
초점 6	독서진흥법 제정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의원입법 추진중이나 도서관협회 등서 제동 걸어
표지 7	한국 옛인쇄문화특별전
서평 8	법제처 「경국대전」 — 박병호 차용석 「형벌권남용으로부터의 자유」 — 백형구 9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 강인덕 10 정가동 「현대신유학」 — 김교빈 동양사학회 「동아시아의 왕권」 — 신용철 11 헤이준 「교과서에서...과학이야기」 — 이호연 12 한국슬라브학회 「러시아문학의 이해」 — 이대우 이태동 「우리문학의 현실과 이상」 — 박철희 13 이승원 「현대사와 삶의 지평」 — 송희복
화제의 책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상사대계」 15 웅진출판 「한국의 자연탐험」
출판화제 16	90년대 한국의 대중문화현상 본격분석 17 국내서도 「만엽집」 연구 활기 띤다 18 컴퓨터영웅들의 컴퓨터 입신출세담 19 “먹는 일도 이제는 문화의 한 유형이다”
리뷰 20	한중 출판교류 본격화 물꼬 튼다
얼굴 21	서울지역출판노조위원장 박강호씨
이 책 그 사람 22	「적과 동지」 펴낸 강준식씨 「글쓰기의 최저낙원」 펴낸 신범순씨 23 「스핑크스의 저주」 펴낸 이성수씨 「람보와 바보」 펴낸 김선한씨
세계의 책 24	“지구를 살리려면 인간의 권리 포기하라” — 배병삼 26 독자서평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프리즘 / 도서음성정보서비스 / 정기구독안내